

광양시·오스트리아 린츠, 미디어아트로 8637km 잇는다

'빛으로부터 8637' 전 광양시 10월 2~10일... "미디어아트 1번지 성장"

광양시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rs Electronica Center, 이하 아르스 센터)'와 공동으로 미디어아트 교류전 '빛으로부터 8637'을 개최한다.

광양-린츠 미디어아트 교류전 '빛으로부터 8637'은 광양시청을 비롯한 광양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8637은 두 도시간 거리를 의미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정인화 시장과 클라우스 루거 린츠시장이 '대한민국 광양시-오스트리아 린츠시 미디어아트 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첫 열매로 10월 미디어아트 교류전 '빛으로부터 8637'을 개최하게 됐다.

오스트리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 린츠는 인구 20만의 도시로 해마다 9월이 되면 미디어아트를 즐기러 오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10만명에 달하는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1970년대 찾아온 오일쇼크 이후 철강산업의 침체를 맞게 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다.

1979년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예술과 기술, 그리고 사회를 위한 축제'를 모토로 진행되는 세계 최초이자, 현재는 세계 최대의 뉴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재단은 페스티벌 운영, 퓨처랩 운영, 각종 전시와 심포지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세계 미디어아트의 허브라 불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교류전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아트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철강산업과 더불어 이차전지 소재 등 미래 소재 산업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로 변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광양시와 린츠시는 철강기업의 거점도시로 인구와 면적 등 비슷한 점이 많았으며, 광양시 대표기업 포스코와 린츠시의 대표기업 보에스트 알파인(Voest Alpine)의 교류를 시작으로 두 기업의 활동이 매개가 되어 1991년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

(광양시 제공)

조명연합수군 군령 올려 퍼진 여수 묘도에 역사공원 조성

도독마을 일대 2만9534㎡ 부지 화합·체험 마당·산책로 등 조성

임진왜란 당시 조명(朝鮮)연합 수군 주둔지였던 여수 묘도에 역사공원이 들어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묘도동 도독마을 일대에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마 역사공원을 조성 중이다.

도독마을은 명나라 진린 도독이 주둔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만9534㎡ 부지에는 야외공연·축제가 가능한 화합 마당, 조선과 명나라의 군복·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마당이 마련된다.

조선의 이순신·송희립 장군, 명나라의 진린 도독과 등자룡 장군 등 임진왜란 당시 영웅들의 조형물이 들어설 조명기념원도 만들어진다.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조명 승전길과 산책로·놀이시설·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인근 이순신대교·봉화산 전망 공원과 연계해 여수만의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살린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명나라 진린 도독과 등자룡 장



여수 묘도 이순신·진린 동상.

군을 추모하는 중국 관광객의 새로운 테마 여행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설 공사는 모두 마쳤으며 현

재 공원에 들어설 콘텐츠 제작 중"이라며 "올해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한우가격 지속 하락...고흥군, 피해 농가 보전직불금 지원

8월9일까지 신청

고흥군이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춰 지급 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

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공중위생업소 34곳 정기평가...최우수 6개 업소 선정



곡성군이 '공중위생업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90점 이상을 받은 6개 숙박업소에 'THE BEST 우수수확업소' 현판을 수여했다. <곡성군 제공>

객실 위생관리·소독 여부 등 점검

곡성군이 지역 위생관리업소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정기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내 숙박업 20개소, 목욕장업 4개소, 세탁업소 10개소 등 총 3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평가에 앞서 대상업소에 평가항목을 사전 안내해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평가는 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인 1조로 실시했다. 객실 위생관리, 먹는 물 관리, 요금표 게시, 소독실시 여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또 2024년 안전대응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기, 건축, 소방 등 4개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숙박업소 대상으로 추가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6개, 우수 15개, 일반 13개 업소로 분류됐다. 90점 이상을 받은 6개 숙박업소에는 'THE BEST 우수수확업소' 현판을 수여하고, 모든 업소에 대해 등급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위생 용품을 차등 지원했다.

평가 결과는 관광객들이 공중위생업소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업소가 한 단계씩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수해경,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

레저·관광객 대상

여수해경청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 찾는 레저·관광객에게 구명조끼를 무상 대여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안 사고 인원 1008명 중 구명조끼 착용률은 14%(139명)로 집계됐다. 연안 활동과 바닷가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바다를 찾는 레저·관광객에게 '구명조끼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무상 대여 서비스'는 해수욕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보성 율포해수욕장 인근의 율포출

장소에 대여용 구명조끼를 비치해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 대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여 절차는 구명조끼 이용 희망자는 출장소를 방문해 간단한 대여명부를 작성 후 대여하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하면 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용자는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물놀이 안전 수칙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시엔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구명조끼 생활화에 동참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 수칙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장길선 의원 선출

부의장 문승욱 의원

구례군의회는 제9대 구례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의장 장길선(사진) 의원, 부의장 문승욱 의원을 선출했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선거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 7명 모두를 의장 후보로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희망하는 의원에 한해 5분 이내의 정견 발표 시간이 부여됐다.

장길선 의원과 문승욱 의원은 각각 전체 7표 가운데 7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고향사랑 지정기부 12개 사업 추가발굴

체류형 답례품 등 추가 방안도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동력이 될 신규 지정 기부 사업 12건을 발굴하고, 맞춤형 답례품 개발방안도 마련했다.

곡성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수행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정 기부 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답례품을 강화해 재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정 기부는 지자체의 기금사업 중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특정해 기부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제1호 기금사업 '곡성에 소아과를 선

물하세요' 성공을 계기로, 복지·문화·돌봄·농업·환경·관광 등 6개 분야 12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곡성군은 이 중 핵심 4개 사업을 '2024년 대표 지정기부사업'으로 구체화해 조만간 우선 모금에 착수한다.

답례품도 기존 농특산물 위주에서 벗어나 체류형 답례품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지정 기부를 성공적으로 발굴하면 기부 금액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곡성만의 지정 기부사업을 발굴해 모금실적을 높이자"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대상 가정 내

어린 및 선풍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토시, 마스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169개소에는 상시 냉방상태 유지를 위해 지난 5월 냉방비를 아동 현원비 48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했다.

거리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디딤밭'에 대해서는 생수지급, 간식식량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